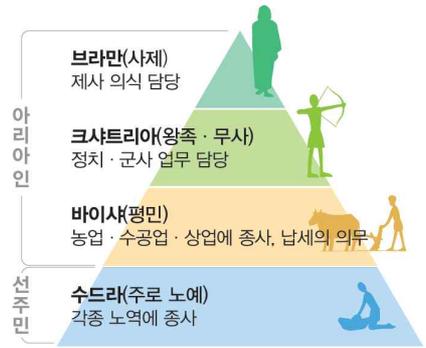


고대 인도 세계의 발전

[새로운 종교의 탄생]

01. 배경

- 기원전 7세기경
 - : 아리아인이 세운 도시 국가들이 갠지스 강 유역에 등장
 - : 통일 국가를 향한 크고 작은 전쟁이 빈번
-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의 성장**
 - : 형식화된 브라만교의 제사 의식 반대
 - : 브라만 중심의 사회 질서 비판
- 우파니샤드 철학 등장
 - : 범아일여[우주의 본체(브라만) = 인간의 본체(아트만), 梵我一如]
 - : 해탈(解脫) 강조



<카스트제의 신분 구조>

02. 불교와 자이나교의 출현(기원전 6세기 경)

- 브라만교의 형식화된 제사 의식, 브라만 사제의 횡포와 타락, 카스트제의 계급 차별 비판
- 불교와 자이나교

불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타마 싯다르타[고타마(가장 신성한 소), 싯다르타(목적 성취), = 석가모니] 창시 • 동물 희생에 반대하여 살생 금지 강조 • 인간은 평등하며 누구나 윤리적 실천을 통해 해탈할 수 있음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심을 버려야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 • 대중의 환영을 받으며 급속히 확산
자이나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다마나[= 마하비라(위대한 인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존칭)] 창시 • 윤회 사상 바탕, 카스트(바르나) 제도의 극복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 • 해탈을 위한 철저한 고행과 금욕 강조 • 땅속의 벌레를 해칠까 봐 농사를 짓지 않고 상업에만 종사 → 채식 위주의 생활



석가모니(샤키아무니)



마하비라상(엘로라 석굴)

고대 인도 세계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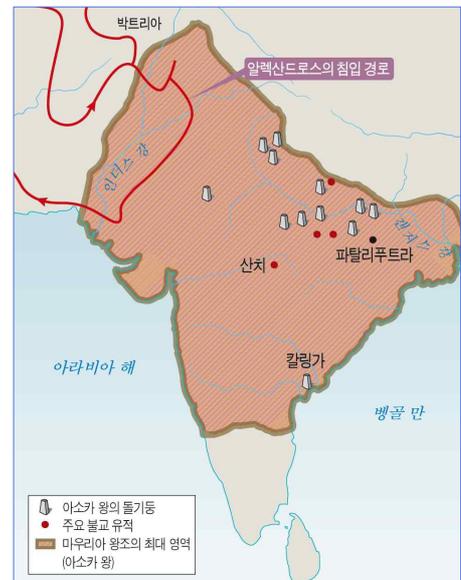
[★마우리아 왕조(기원전 317 ~ 기원전 180)]

01. 통일 전의 상황

- 많은 소국으로 분열
- 마가다(Magadha) 왕국
 - : 기원전 5세기 경 북인도 통일
 - : 불교, 자이나교 보호
- 알렉산드로스(BC. 356 ~ BC. 323)의 원정군이 인더스 강 유역 침공
 - : 통일 자극

02.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

-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 : 분열 상황을 수습하고 인도 북부를 통일하여 왕조 개창
- 아소카왕(재위 기원전 270 ~ 기원전 230년경, 阿育王)
 - : 칼링가 정복
 - :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륙 대부분을 통일하여 전성기 구가
 - : 석주(石柱, 돌기둥) 건립
 - : 불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선언
 - : 불경 정리, 불교 포교, 산치 대탑과 같은 불탑 건립



<산치 대탑>



<아소카왕 석주의 머리 부분>

<마우리아 왕조의 영역(BC. 3C)>

▣ 석주에 새겨진 아소카 왕의 칙령



- 누구나 자신의 종교만을 숭상하고 다른 종교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자신의 종교에 무덤을 파는 것이며, 다른 종교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 경청하라! 다른 종교의 교의나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여라.
- 칼링가를 정복하면서 나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들의 영토가 수많은 시체로 뒤덮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슴은 온통 찢어지고 말았다. …… 앞으로 나는 오직 진리에 맞는 법만을 실천하고 가르칠 것이다.

-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상좌부(소승) 불교 발달
 - : 스리랑카, 태국 등 동남아시아 각국으로 포교단 파견

고대 인도 세계의 발전

[안드라 왕조(기원전 1세기 ~ 기원후 3세기)]

01. 건립

- 드라비다 족이 데칸 고원에 건국

02. 발전

- 로마, 동남아시아 등지와 해상 무역을 통해 번영

03. 문화

- 불교와 브라만교 발전, 카스트 질서 회복
- : 교역 활동을 통해 남인도로 확산



[★**쿠산 왕조**(30 ~ 275)]

01. 건국

- **서북부 지역**, 푸르샤푸라 중심
- 이란 계통의 쿠산 족이 세움

02. 발전

- 중계 무역으로 번영
- : **후한과 서아시아의 파르티아를 연결하는 동서 교역로 장악**
- : 로마와 바닷길을 통해 교역

〈쿠산 왕조의 영역과 동서 교역〉

03. 전성기

- **카니슈카왕**(재위 128 ~ 151)
- : 북인도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최대 영토 확보
- : 불교 지원과 포교에 노력
 - ↳ 불경 결집, 산스크리트어 경전 완성
- **대승 불교 발달**
- : 중생(衆生)의 구제 강조
- : 부처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음
- **간다라 양식**
- : 간다라 지방에서 발달
- :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의 융합
- : 불교 미술 발달
- : 인간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표현한 **불상 제작**
- : 대승 불교와 함께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 한반도, 일본 등 동아시아로 전파



〈간다라 양식과 불상〉

고대 인도 세계의 발전

[★굽타 왕조(320 ~ 550)와 인도 고전 문화의 발달]

01. 건국

- 찬드라굽타 1세(재위 320 ~ 335)
- 갠지스 강 유역의 파탈리푸트라

02. 전성기

- 찬드라굽타 2세(재위 380 ~ 415)
- : 북인도 통일
- : 벵골 만에서 인더스 강 유역까지 영토 확장
- : 중앙과 지방의 행정 조직 정비 등 중앙 집권 체제 강화
- : 학문과 예술의 적극 장려 → 독자적인 인도 문화 발전



<굽타 왕조의 영역>

03. 인도 고전 문화의 황금기



(시바 신상)

- 힌두교 성립
- :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불교 및 다양한 민간 신앙이 융합
- : 창시자 無, 체계적인 교리 無
- :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라마 등 다양한 신들을 숭배
- : 누구나 신 앞에 나와 제물을 바치는 것이 허용 → 급속하게 대중화
- : 왕들이 자신을 비슈누에 비유하며 후원
- : 카스트에 따른 의무 수행 강조
- : 『마누 법전』 중시(일상생활에 영향)

- 불교는 쇠퇴하였으나 날란다 사원을 중심으로 교리 연구 지속
- 산스크리트 문학
- : 브라만 계층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를 공용어로 사용
- : 『사쿤탈라』·『메가두타』(칼리다사의 희곡), 『마하바라타』·『라마야나』(인도 2대 서사시) 정리
- 굽타 양식
- : 조각(간다라 양식의 그리스적 기법을 극복하고 인도 특유의 곡선미 강조), 그림(독특한 음영법 사용)
- : 아잔타 석굴 사원(불교 사원), 엘로라 석굴 사원(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사원)
- ↳ 인도 종교 건축의 최고 걸작, 불상과 벽화,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의 불교 미술에 영향

04. 자연 과학의 발달

- 영(0)의 개념(브라마 굽타, 『우주의 창조(브라마스푸타 싯탄타)』), 10진법 사용 등 수학 발달
- : 아라비아 숫자 체계의 형성에 기여
- 천문학과 의학 발달, 원주율을 이용하여 지구의 둘레 추산, 지구의 자전설과 지동설 제기

05. 쇠퇴

-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인 에프탈의 침략, 왕위를 둘러싼 내분으로 쇠퇴하다 멸망



불교의 성립과 전파



불교의 구분

구분	소승 불교(→)	대승 불교(⇔)
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좌부 불교 • 출가자 중심 • 개인의 해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부 불교 • 재가자 중심 • 중생 구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우리아 왕조 : 아소카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산 왕조 : 카니슈카왕
전파	• 동남아시아	• 중앙 · 동북아시아

무불상 시대 ⇨ 간다라 양식 ⇨ 굽타 양식

▶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를 불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부처의 발자국이나 부처의 가르침을 뜻하는 법륜(수레바퀴), 부처의 자비를 상징하는 연꽃 등을 사용하여 부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부처의 발자국>



<간다라 불상>



<사르나트 초전법륜상>



<아잔타 1번 석굴의 연화수 보살 벽화>

[] 양식	[]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의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다라 양식과 인도 고유의 특색이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 모양이 물결 모양이고, 눈언저리가 깊고 콧대가 오뎅한 서양인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 주름의 선을 생략하고, 인체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를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한 불상을 만들어 예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굴이나 옷맵시에서 인도 고유의 색채가 뚜렷이 나타남



▣ 찬드라굽타 2세(㉓, 재위 380 ~ 415)

굽타 왕조의 전성기를 이룩한 왕으로서, 영토나 문화면에서 현재 인도의 모습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비크라마디티아(무예와 용맹의 태양)’ 라는 별칭이 있는데, 한역으로는 초일왕(超日王)이라고 한다. 중앙 인도의 데칸 고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 상대인 나가족의 쿠베라나가를 왕비로 맞아 나가족을 회유하고, 또 다른 경쟁 상대인 바카타카 왕조의 루드라세나 2세에게 딸을 출가시켜 동맹을 맺었다. 또한 정복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강대한 샤카족(族) 왕국을 정복하였다. 중국과 로마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차지하여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서쪽으로의 영토 확장을 통하여 서아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왕의 치세 때는 산스크리트 문학의 황금시대였는데, 시인 칼리다사가 우자인에서 활약하였고, 동진(東晉)의 승려 법현(法顯)이 인도 여행을 한 것도 이때이다.** 또한 주요 도시에 대학을 세워 학문과 종교를 장려하고, 독자적인 인도 문화가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힌두교 - 업(카르마)과 카스트의 중시

창조주는 …… 각자의 업을 정하였도다. 브라만에게는 『베다』를 가르치며 제사 지내는 일을, 크샤트리아에게는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릴 것을, 바이사에게는 농사를 짓고 짐승을 기를 것을 명령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드라에게는 앞선 세 신분의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임무를 명령하였다.

- 『마누 법전』

▣ 동남아시아에 끼친 인도의 영향

태국의 '라마야나' 벽화. 아유타야 왕조의 이름이 '라마야나'의 야요디아 왕국에서 유래되었을 정도로 태국(시암)은 인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자와섬의 프람바난 힌두 사원. 중부 자와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한 마타람 힌두 왕국이 850년 경에 세운 사원으로, 240여 개의 신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와섬에 있는 보로부두르 불교 사원. 8세기 중엽 중부 자와에서 번성한 사일렌드라 왕조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문화 교류 (『처음 읽는 인도사』, 2012)

→ 불교
→ 힌두교

인도: 히말라야 산맥, 부다가야, 미얀마, 대월국, 시암, 크메르, 실론, 인도양, 아라비아해, 인도스강, 벵골만, 태평양

동남아시아: 스리위자야 (7~13세기), 사일렌드라(8~9세기), 보로부두르

◉ 앙코르 와트: 캄보디아의 앙코르에 있는 이 사원은 12세기 크메르 제국 시절에 축조된 이래 모든 종교 활동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다. 처음에는 힌두교 사원으로 봉헌되었다가 후에는 불교(상좌부 불교) 사원으로 사용되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인도, 중국, 이슬람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정착되었다.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도서 지역은 중국과 인도 사이의 뱃길을 연결하여, 많은 상품이 거래되는 **교역의 중심지로서 일찍이 인도의 영향 아래 불교와 힌두교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15세기에 플라카 왕조가 이슬람교로 개종하면서 교역로를 따라 이슬람교가 이 일대에 급속히 전파되었다.

개념 Check

- ① 마우리아 왕조의 제3대 왕인 ()은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을 통일하였다.
- ② () 왕조의 카니슈카왕은 불교 지원과 포교를 위해 노력하였다.
- ③ 쿠샨 왕조 때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된 () 양식의 불상이 제작되었다.
- ④ ()는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불교 및 다양한 민간 신앙이 융합되어 성립된 종교이다.
- ⑤ 굽타 왕조 시대에는 『샤쿠타라』 등 () 문학이 발달하였다.

유형 CHECK!!

01

다음 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9월 모의평가]

자와섬에 있는 이 사원은 인도 굽타 양식의 영향을 받아 조성되었어요. 수많은 작은 탑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탑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 ① 시크교의 사원이었다.
- ② 쿠트브 미나르가 세워져 있다.
- ③ 샤일렌드라 왕조 시기에 축조되었다.
- ④ 크메르족이 세운 제국에 의해 건립되었다.
- ⑤ 찬드라굽타 2세의 명령에 따라 건설되었다.

02

(기)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21-6월 모의평가]



이 유물은 (기)의 아소카왕을 모델로 하여 중국 남북조 시대에 제작되었다. 중국에서는 아소카왕을 아육왕이라 불렀으며, 전륜성왕의 화신으로 이해하였다. 아소카왕은 부처의 가르침에 따를 것을 강조한 조칙을 새긴 석주를 만들어 각지에 세웠다.

- ① 시크교가 출현하였다.
- ② 『샤쿠타라』가 저술되었다.
- ③ 타지마할이 조성되었다.
- ④ 쿠트브 미나르가 세워졌다.
- ⑤ 상좌부 불교가 발달하였다.